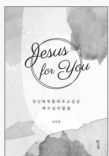


בֵּית ספר (책의 집)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

송민원 씀, 아드벤트



“나아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나 당신이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당신이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뜻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는 요청합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 위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을 덮기를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월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암기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1.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성령강림절을 시작하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배움주일 안내:** 예배란 무엇입니까?
오후 1시 30분, 소예배실
3.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교훈(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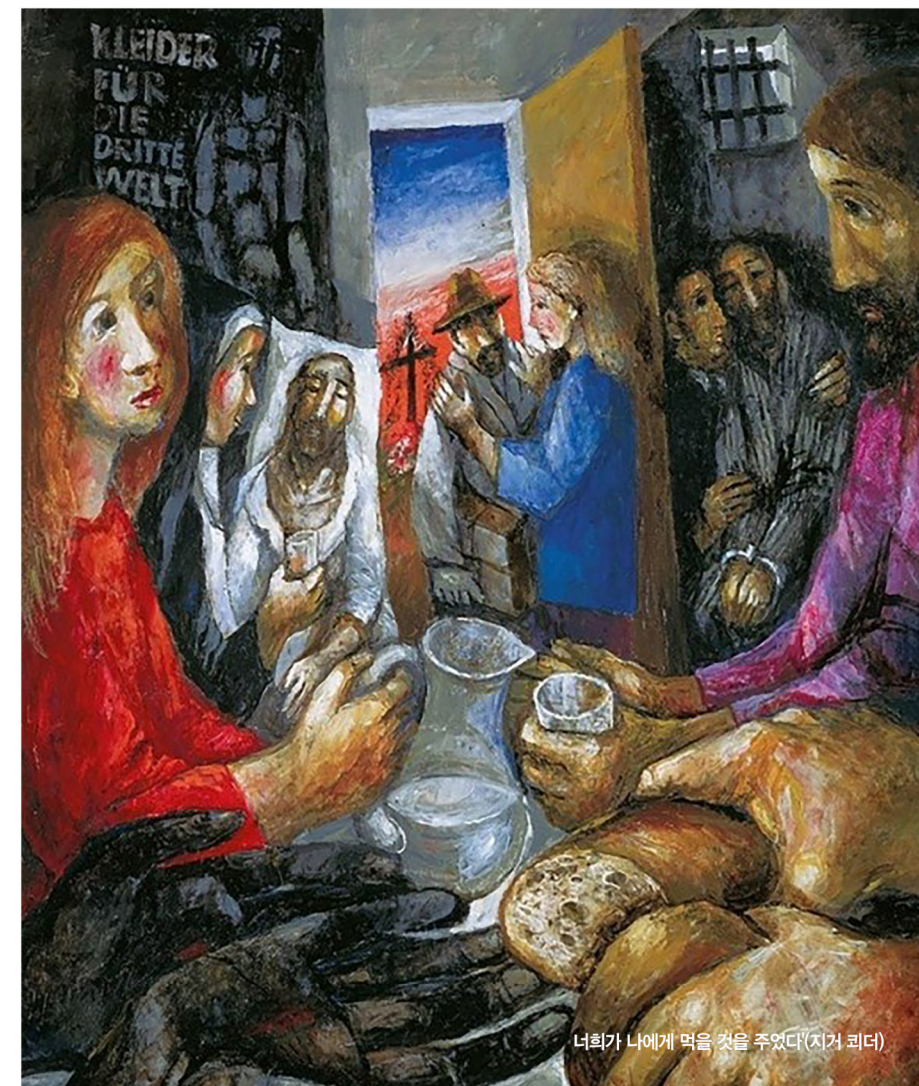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성령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는 바람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시원한 바람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지저 뢰더)

제51권 23호

2025년 6월 8일(성령강림절, 맥추감사주일)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1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선교회	연 령
주일낮예배	오 전 11 시	본 당	아브라함	남 성 교 우
수요기도회	오 후 7 시	소 예 배 실	에 스 더	61-70세 여성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소 예 배 실	드 보 라	51-60세 여성
아동부예배	오 전 9 시	소 예 배 실	마 리 아	41-50세 여성
청소년부예배	오 전 9 시	청소년부실	한 나	40세까지 여성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온라인 헌금계좌: 신한 061-691-7315				

주 일 예 배 (성령강림절, 맥추감사주일)


주일 오전 11시	인도 : 송 혁 목사
경배와 찬양	함 께
* 입 레 송	주 찬양
* 예배의 부름	요한복음 4:23-24
* 송영과 기원	반주, 인도자
* 영 광 송	478장(3절 후, 간주)
함께 드리는 기도	함 께
참회의 침묵기도	함 께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성 시 교 독	시편 104편(성서일과표를 보며)
감 사 찬 송	550장(3절 후, 간주)
기 도	김영준 장로
* 성 경 봉 독	창세기 11:1, 4, 8-9(구약 12쪽)
특 송	용서하소서
말 씀 선 포	하늘과 땅 사이
결단의 찬송과 기도	193장(2절 후, 간주)
봉 헌	함 께
성도의 교제	함 께
* 교제의 찬양	382장(3절)
* 축 도	송 혁 목사

* 포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 기도 - 양해룡 장로

- * 6월 안내위원 : 김보엽, 최형단, 김명숙, 유미경
- * 6월 헌금위원 : 이황재
- * 6월 주방봉사 : 4, 8구역

생명의 말씀



한때 온 세상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직접 도시를 세우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드높여서, 우리가 온 땅에 흠여지는 일이 없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세상 곳곳으로 흠어 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세상 곳곳으로 흠어 버리셨다.
(창세기 11.1, 4, 8-9/메시지성서)

배 움 주 일

오후 1시 30분 소예배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함 께

수 요 가 도 회

오후 7시 인도 : 이기도 목사

찬 양	함 께
기 도	이수경 권사
성 경 봉 독	역대상 10:7-14(구약 626쪽)
말씀선포와 기도	없드리다
축 도	이기도 목사

다음 주 기도 - 김하은 집사

일 상 가 도 (매일성경)

날짜(요일)	목상 본문	12일(목)	역대상 14.1-17
9일(월)	역대상 11.20-47	13일(금)	역대상 15.1-29
10일(화)	역대상 12.1-40	14일(토)	역대상 16.1-22
11일(수)	역대상 13.1-14	15일(주일)	역대상 16.23-43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지 난 주 일 말 씀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요한복음 17.20-26)
(성서일과표/사도행전 16.16-34, 시편 97.1-12, 요한계시록 22.12-14, 16-17, 20-21, 요한복음 17.20-26)

오늘은 부활절기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올해 부활절기 내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배하였고, 두 주 전부터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곧 다가올 이별과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모두 알린 후, 세상에 남게 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에 당황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목자를 잃은 양처럼 흔들리는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최소한 두 세대가 지난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모두 죽었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드리신 이 기도에는 요한복음 공동체의 신앙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신비와 진수를 맛보았습니다. 이제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 예수님 당시 남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뜻이지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믿는 이들을 위해 드린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하나 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영광, 곧 세상이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하나 됨은 생명 충만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특히 시편 지혜자들은 여호와를 선편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선편하는 것은 찬양하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필결과 인과응보의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질서입니다. 그들이 본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만 예수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세리와 죄인도 사랑합니다. 탕자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 전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며 빛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성서 시편 97편에 아주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정직한 자를 위하여 빛과 기쁨을 뿌리신답니다. 직역하면 “빛은 의인에게 뿌려지며, 기쁨은 마음이 바른 자들에게 뿌려진다.”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만 귀하는 자가 지혜문학에서 말하는 의인이고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빛과 기쁨을 뿌리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주님의 말씀과 충동하는 것이 아닌가요?

시편 지혜자의 빛은 해와 달이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빛처럼 영적 통찰과 깨달음, 밖에 서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빛을 향해 삶의 방향을 돌리느냐가 문제지요. 우리를 생명 충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설정한 조건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에만 삶을 거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조카한 신앙,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결코 이 빛을 볼 수 없겠지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바울은 오로지 돈벌이 희망에 사로잡혀 사는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돈이 아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라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이 일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라고 외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빛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뿌려지기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기를! 살렙.